

정보보호 의식과 실천 얼마나 달라졌을까?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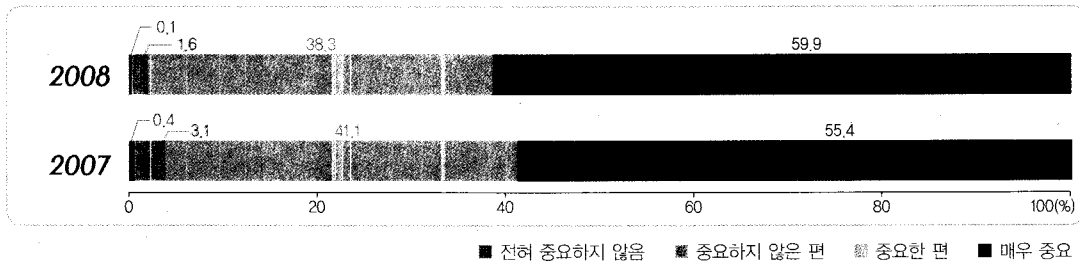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과연 2007년 국내 정보보호와 2008년 국내 정보보호 수준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 매년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본다.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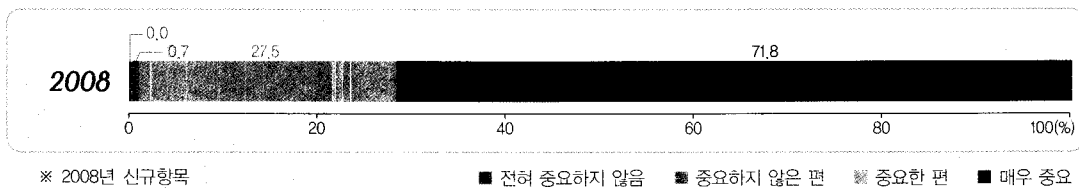
▪ 정보화 역기능 무시위요

정보보호 인식과 관련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정보화 역기능의 심각성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실태 및 정보보호 인식' 분야의 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용자는 2007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한 이용자는 증가했으며, 이 같은 인식은 정보화 역기능 유형별 우려항목의 전반적인 인식증가로 이어졌다(그림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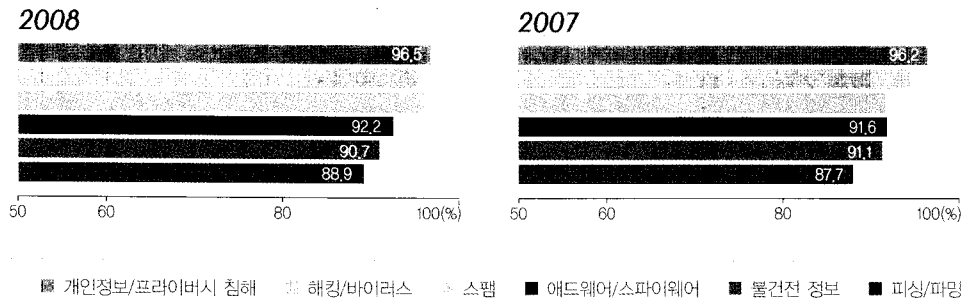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그림1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그림2



역기능 유형별 우려 정도 ·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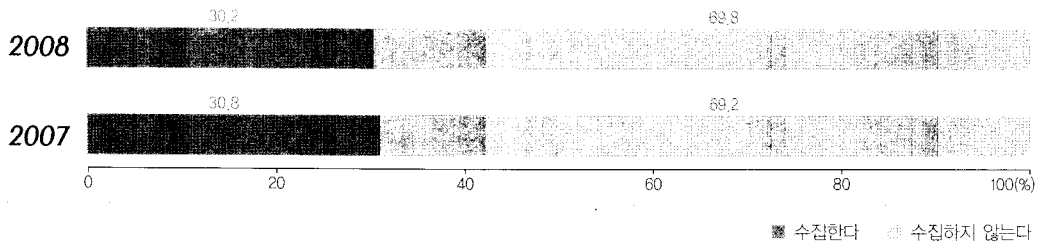


▣ 정보보호 관련 정보 제공 채널 확보 필요

하지만 높은 정보보호 인식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 실천은 여전히 아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이용자 중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자 차원의 역기능 대책을 수립하는 이용자는 전체 1/3 수 30.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오히려 지난 2007년에 비해 0.6% 감소한 수치(그림4).

다만,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이용자 중 정보보호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용자는 2007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자의 37.5%는 정보의 출처를 몰라서, 20.4%는 복잡하고 많은 정보 때문이라고 응답해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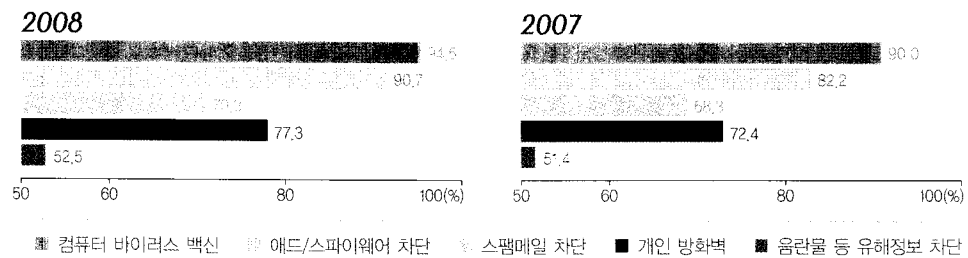
정보보호 관련 최신정보/대책 수집여부 ·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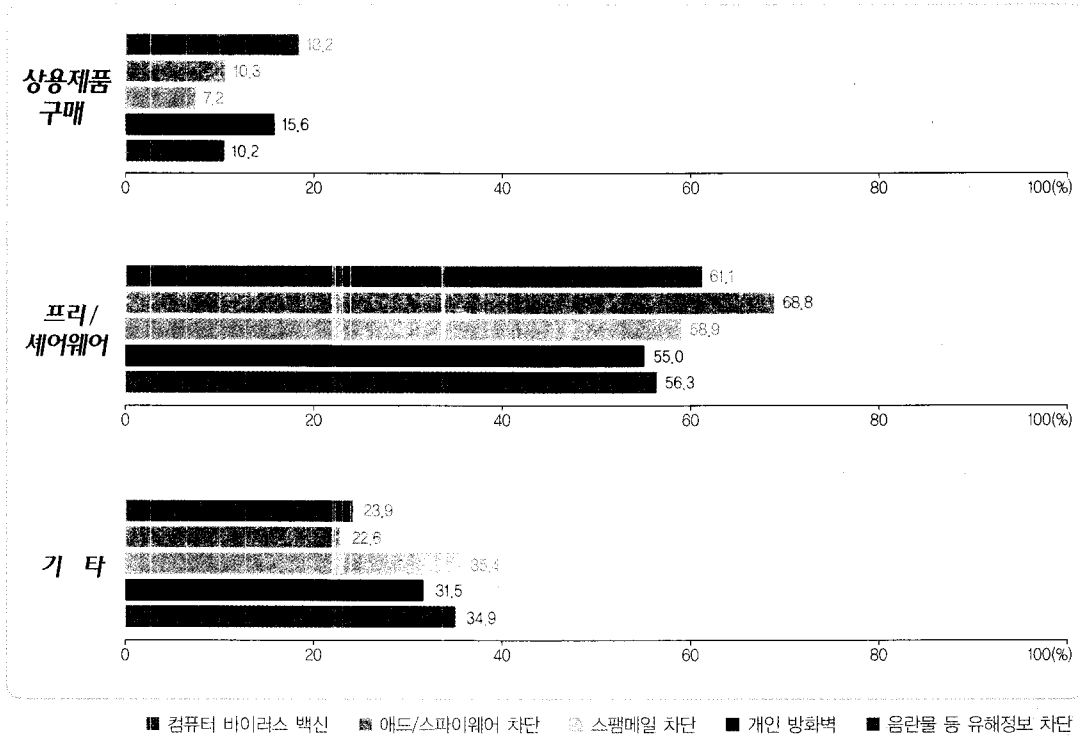
▣ 정보보호 제품, 이용한다!

한편,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보호 제품 이용률은 2007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드웨어/스파이웨어 차단 프로그램 이용률이 약 8.5%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이용률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 이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이용자는 상용제품보다 프리웨어 혹은 쉐어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6).

정보보호 제품별 이용률 ·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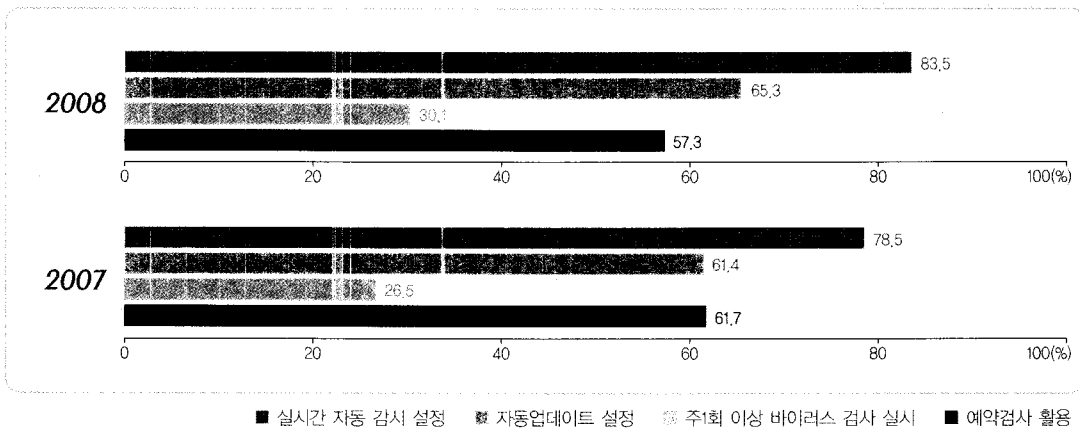


정보보호 제품별 이용형태 · 그림6



정보보호 제품 이용률 증가와 함께 실시간 자동감시 및 자동 업데이트 기능 설정, 그리고 PC 운영체제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이용자가 월 1회 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바이러스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이용자도 30.1%로 2007년 조사 당시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보호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이 정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그림7).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활용 현황 · 그림7



▪ 주민번호 대체수단 인지도 크게 상승

지난 2008년 한해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관심을 모았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및 대응 분야도 이번 조사내용에 포함됐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항목인 개인정보 취급방침 확인 여부에 대해 이용자의 약 60%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중 실제로 취급방침을 확인하는 이용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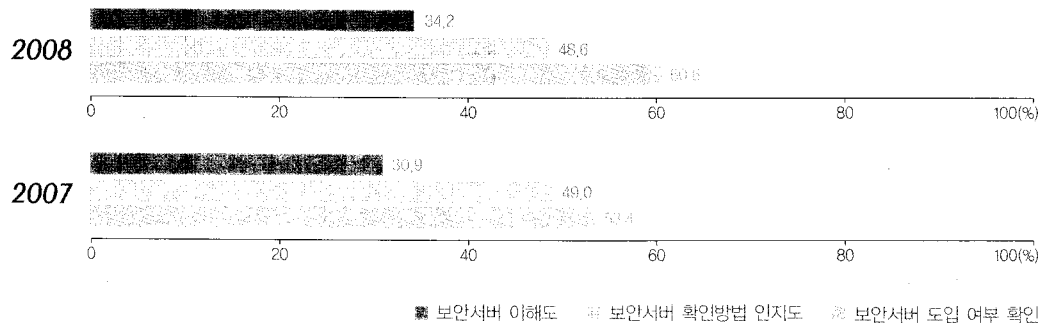
31.3%에 불과했다(표8). 미확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85.7%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너무 많아 읽기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확인여부 · 그림8



한편, 개인정보 취급방침 중 가장 관심있게 확인하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38.5%),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28.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해 알고 있는 이용자는 60%로, 지난 2007년 i-PIN 서비스 인지도가 20%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알고 있는 이용자 중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이용자도 59.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방통위와 KISA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던 보안서버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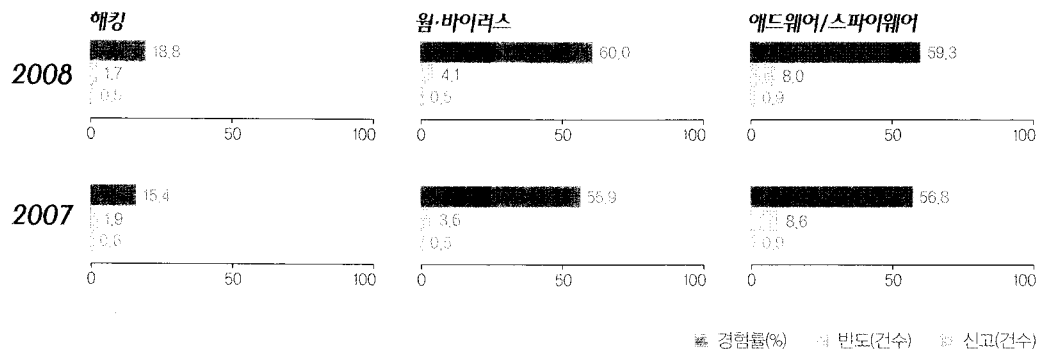
보안서버에 대한 이해도 및 확인 실태 · 그림9



▪ 정보화 역기능 피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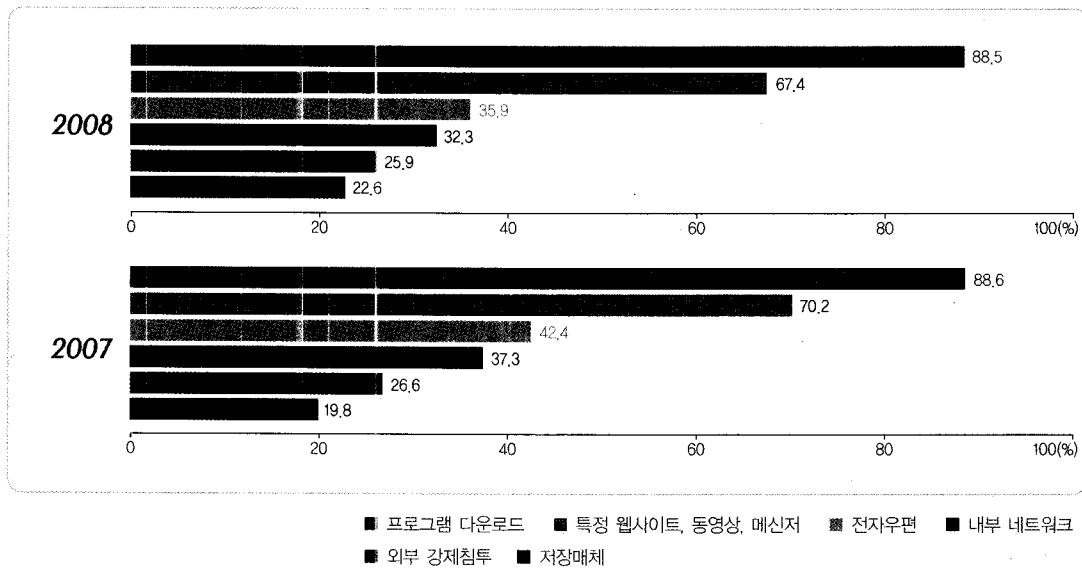
정보화 역기능의 피해현황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 중 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경험이 지난 200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해킹, 애드웨어/스파이웨어에 의한 피해 빈도수는 감소했으나 웹·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빈도수는 증가했다(그림10).

정보화 역기능 유형별 피해 경험률 및 빈도 · 그림10



웹·바이러스 피해자 중 가장 많은 88.5%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정 웹사이트, 동영상, 메신저' 등이 67.4%로 높게 나타났다(그림11). 한편,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 중 47.1%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가 경미해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24.9%, 21.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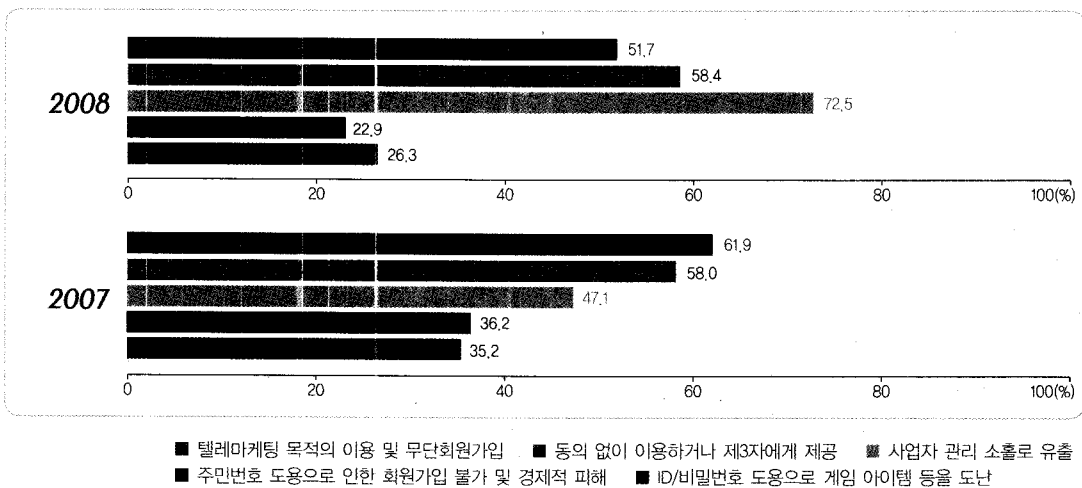
웹·바이러스 감염 경로별 피해 경험 · 그림11



▪ 휴대전화 스팸 인식,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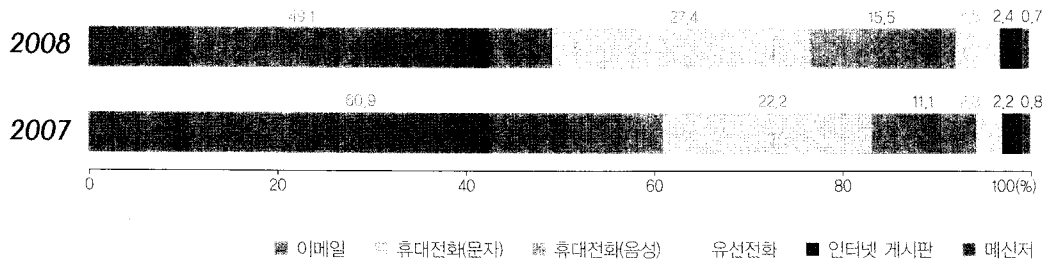
불법 스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메일을 통한 스팸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인식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치상으로 이메일 스팸으로 인한 피해 비중은 지난 2007년에 비해 11.8% 감소한 반면, 휴대전화 스팸의 심각성은 9.6%가 증가한 42.9%로 조사됐다(그림13).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부분으로 이메일은 개인정보 유출, 시간낭비 측면에서, 휴대전화는 불쾌감,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 측면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4).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경험 유형 ·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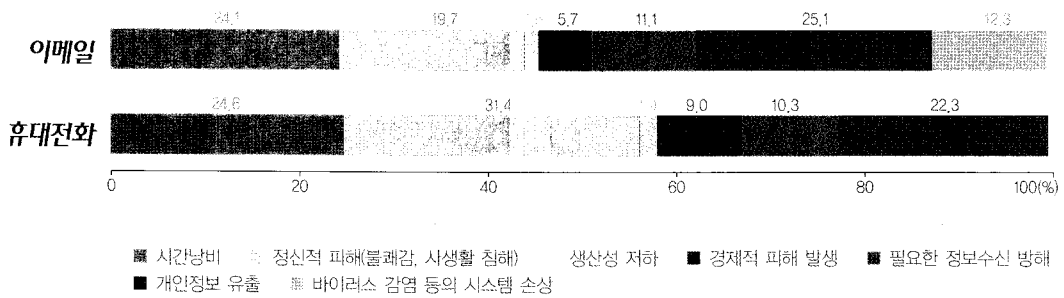




스팸 유형에 따른 피해정도 · 그림 13



스팸으로 인한 피해유형 · 그림 14



18 사용자 중심의 정보보호 정책 전환 예상

한편, 이번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차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주도했던 KISA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정책', '수동적 대응체계', '정부 주도의 정보보호'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의 정책', '능동적 예방체계', '자율적 정보보호'로 정책 방향을 개선해 나가고, 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A 동향분석팀 지상호 팀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정보유형과 침해유형은 더욱 다양해 질 것"이라며,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얻고, 또 침해사고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이용자 중심의 정보보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

